

무안군, 농번기 맞아 영농편의 기자재 지원

친환경 농약통·다용도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지난해 12월 대설 피해 농가·영세농 우선 방침

무안군은 영농편의를 위해 친환경 농약통과 다용도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신청을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친환경 농약통은 1,200리터와 2,000리터 용량의 교반시설이 설치된 통

으로 농약을 골고루 섞어주기 때문에 바다에 잔류농약이 남지 않아 농약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농약을 분무기의 동력으로 자동 희석시켜 주므로 노동력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다용도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채소

의 사계절 재배 뿐만 아니라 각종 작물의 육묘, 농산물 건조작업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6㎡이상 330㎡미만 면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12월 대설로 비닐하우스 피해를 본 농가와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친환경 농약통과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은 4월 1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중이며, 군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오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영농기 이전에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가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2021 친환경농업 대상 평가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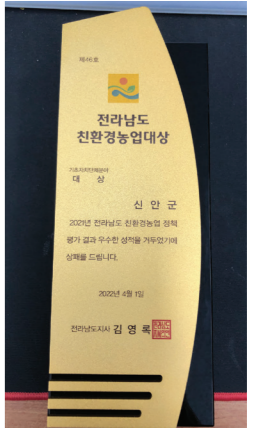
전국 최대 유기농산물 인증 3,162ha 보유

신안군은 4. 1일 전남도청에서 개최한 2021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자치단체분야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내실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 등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기농산물 재배 농가에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장 상위 인증단계인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2020년 2,919ha에서 2021년말 기준 3,162ha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넓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19,357ha의 21%인 4,024ha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비외 인증면적이 전년 대비 424ha 증가하였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남도의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80백만원을 확보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 100리 벚꽃길·왕인박사유적지 개방

영암왕인문화축제 연기...봄철 관광객 종합대책 방역활동 행정력 집중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지역축제 기본 지침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4월 초에 개최하는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군은 공식적인 축제 일정은 연기됐지만,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매년 봄을 느끼는 관광객수인 수려한 100리 벚꽃길과 왕인박사유적지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00리 벚꽃길과 왕인박사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봄철 관광객 종합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광지 전문 방역 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혼잡 구간 교통안내와 음식물 취식 금지를 위해 노점상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방문해 주시라”며 “영암왕인문화축제 연기의 아쉬움이 있으나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찾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호남대표 중견기업, 화천기공(주) 영광공장 준공

영광군은 지난 3월 31일 최근 준공한 화천기공(주) 영광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화천기공(주) 대표 권영두(권영열)는 연 매출 1,790억 원, 총직원 수는 330여 명으로 철주물, 금속 절삭기계, 주방 물품을 생산하는 호남

대표 중견기업이다. 2018년에 영광군과 투자협약 체결 후 약 38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설비를 갖춘 주물공장 생산라인을 대마산단으로 신축 이전했다. 이번에 준공된 영광공장에는 12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 달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목포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남에서는 시 중에서 유일하게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제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1차 평가 뒤 지자체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성공/실패) ▲공약일치도 분야(성공/실패)로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목포시는 5개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총점 90점을 넘

어 SA등급에 올랐다.

‘국내 최초 전기 추진 차도선 진수’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맛의 도시 목포’ 실현, 시민 교통기분권 향상을 위한 전국 최초 법인·개인 통합 브랜드 ‘목포낭만골’ 운영 등 미래 전략산업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공약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주요 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투표(설문조사)’ 등 시민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을 노력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약 평가에서 있어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최우수등급에 올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함평군이 전남도 체험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이달 14일까지 모집한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전남도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 곳곳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외 거주자로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이 지원되며, 7~30일 동안 함평 곳곳을 여행 하면서 여행 후기를 개인 SNS와 '남도여행 길잡이'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함평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문화관광체육과 이메일(ksy7800@korea.kr) 또는 우편(함평읍 중앙길 200)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봄엔 가족·친구와 함께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함평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